



제주해상서 어선화재 1명 사망·11명 실종

통영선적 29t 연승어선 한국·베트남 선원 12명

사고 해상 높은 파도로 실종 선원 수색 어려움

문 대통령 “자원 총동원 인명 구조 최선 다하라”

제주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서 불이 나 선원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다.

19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제주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분쯤 차귀도 서쪽 76km 해상에서 통영 선적 연승어선 대성호(29t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제주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는 이날 오전 3시까지 사고 해역 인근에서 대성호와 함께 투망(그물을 던지는) 작업을 했던 A호가 했다. 이후 A호는 오전 6시쯤 대성호와 교신을 시도하다 연락이 닿지 않자 사고 해역 인근으로 배를 몰아 연기가 치솟고 있는 대성호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신고를 받은 즉시 해경·해군 함정과 민간 어선 등 17척을 포함해 헬기 10대, 특공·구조대원을 사고 해역에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신고 접수 1시간 여만인 오전 8시 15분쯤 해경 헬기가 최초로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엔 대성호 선체 상부가 화염에 휩싸인 상태였다. 헬기에 탄 구조대원은 인근 어선에 내려 선체 진입을 시도하려 했지만, 불길이 거세 승선할 수 없었다. 또 오전 9시



19일 오전 제주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12명을 태운 29t급 갈치잡이 어선에서 불이 나 해경 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제공

20분쯤에는 목포해경 소속 함정이 단정 소화포로 화재를 진압하려 했지만 같은 이유로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해경 측은 밝혔다.

대성호는 오전 9시40분쯤 선미만 남긴채 완전히 침몰했다. 선체는 두 동강이 났다. 대성호에는 선장 정모(55·경남 통영시)씨를 포함해 한국인 선원 6명과 베트남 국적 선원 6명 등 모두 12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오전 10시21분쯤 사고 해역에서 남쪽으로 약 7km 떨어진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선원 김모(60·경남 사천시)씨를 구조해 제주 시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김씨는 숨졌다.

발견 당시 김씨는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고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또 심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선원 11명은 실종된 상태다. 해경 구조대원이 잠수해 이날 두차례 침몰한 선체 선미 내부를 수색했지만 나머지 선원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광

역구조본부를 꾸려 이번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제주를 찾아 구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고 해역 수온은 19~20℃로, 해경은 해상 실종자 생존가능 시간을 24시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20일 새벽까지가 구조의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성호는 지난 8일 오전 10시38분쯤 경남 통영시 통영항에서 출항해 제주해역에서 갈치 조업을 마친 뒤 지난 18일 오후 8시38분쯤 통영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현재 사고 해역에는 2~3m 높이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어 해경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학선 제주해경경 경비과장은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선주를 통해 사고 사실을 알리고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서도 연락을 취했다”면서 “사고 원인은 수색과 선체 인양을 완료한 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및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7시9분쯤 제주 시 차귀도 서쪽 76km 해상에서 통영 선적 연승어선 화재 및 침몰 사고와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높은 파고와 차가운 수온으로 신속한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행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해경, 해군,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합동구조 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또 “피해자 가족들에게 수색 및 구조활동 진행상황을 최대한 신속하게 알리고 지원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베트남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즉시 연락을 취하고, 가족들의 한국 방문 등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라고 덧붙였다”고 밝혔다.

부미현·이상민·김현석 기자

■ 대성호 화재 왜 피해 컸나... 선체 화재 취약... 불길은 순식간에

19일 발생한 대성호 화재 사고는 지난 2014년 6명의 사망자와 1명의 실종자를 낸 성일호 화재 참사와 묘하게 닮아 있다. 두 사건 모두 자체 구조 요청은 없었고, 선박도 똑같이 불길에 취약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소재로 만들어졌다.

19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대성호는 이날 오전 3시까지 차귀도 해상에서 인근 어선과 함께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돼 이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대성호에 달린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신호가 이날 오전 4시15분까지 잡혔다가 사라진 것을 비추했을 때 사고는 이날 오전 4시를 전후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경은 대성호가 자체적으로 구조 요청을 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최초 화재 신고는 앞서 대성호와 함께 투망 작업을 했던 A호가 이날 오전 7시5분쯤 했다.

선박에 난 불이 급속도로 번지면 선원들이 미처 신고할 겨를도 없이 바다에 뛰어든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사고 해역 인근에서 표류하다 사망한 선원은 구명동의를 입지 않았고 얼굴 등에는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건조된 지 17년이 된 대성호는 합성수지가 함유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로 만들어졌다. FRP 재질의 선박은 알루미늄 선박에 비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도 대성호에서 난 불길이 위



연승어선 화재사건과 관련 백학선 제주해경경 경비과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낙 커 접근 자체가 어려워 진입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3월 24일 화재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추자 선적 유자량 어선인 성일호(38t)도 FRP 소재로 만들어졌다. 공교롭게도 성일호 또한 건조된 지 17년이 지난 선박이었다.

성일호 화재는 오전 1시30분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해경은 불이 난지 3시간이 지난 오전 4시55분쯤에야 불을 목격한 어선의 통신내역을 청취해 사고를 인지할 수 있었다.

통신장비가 있던 조타실에서 불이 시작돼 신고할 겨를도 없이 선원들 전원 바다에 뛰어든을 때문이었다. 당시 이 사고로 성일호에 탄 선원 9명 중 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너무 끔찍...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 없어”

실종 선원 가족 제주 도착 해경 “매일 수색상황 설명”

제주해상에서 발생한 대성호 화재 사고와 관련 실종 선원 가족들이 제주를 찾았다.

19일 오후 5시 제주해양경찰서를 찾은 대성호 실종 선원 가족 9명은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분노 4층 강당에 마련된 가족 대기실로 향했다. 이들 중 몇명은 몸을 흔자 가누기 힘들어 해경의 부축을 받으며 대기실로 향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해경 관계자 등은 가족 대기실에서 실종 선원

가족 등을 대상으로 대성호 화재 사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실종 선원 가족 중 한명은 “너무 끔찍한 일이다. 아무 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브리핑을 마친 후 이날 오전 발견된 선원 김모(60)씨의 유가족 3명은 김씨가 안치된 병원으로 향했다. 나머지 실종 선원 가족들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마련한 숙소로 무거운 발걸음을 향했다.

제주해경 등은 실종 선원 가족을 대상으로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3시 제주해양경찰서 가족 대기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색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현석기자



“이민호군 잊지않고 기억할게요”

어제 추모조형물 제막식

지난 2017년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교생 고(故) 이민호군 추모조형물이 제주학생문화원에 세워졌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제주학생문화원 ‘미래의 자리’에서 고 이민호군의 유족, 교육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이민호군 추모조형물 제막식 및 추모제’

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추모조형물 제막식 행사로 ▷추모조형물 설치 경과 보고 ▷교육감 추모사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추모사 ▷제막식 ▷유족대표 인사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제로 진행된 2부 행사는 ▷추모공연 ▷고 이민호군의 친구 발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발

언 등이 이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금번 추모조형물 제막식을 통해 향후 현장실습 안전사고의 교훈을 잊지 않고 각종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한 현장실습처 제공과 학생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리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 소리와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전세 렌터카

2018. 12. 17. 제23회 소비자의날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평가 대상 수상

4년동안 타던 차를 반납하면 전세보증금처럼 새차 탈때 낸 금액을 100% 돌려 받는 새로운 렌터카 서비스 당신의 자산과 가치를 지켜주는 카테크의 시작 전세렌터카로 갈아타세요!

차고지증명제가 필요없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타는 방식으로 자산을 지키자!!

개인, 법인 사업자 경비 처리됨

매월 관리비와 기름값으로 풀옵션 차량을 탈 수 있다. 주행거리 제한 없는 상품. 우리가족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 고객의 신용상태 상관없이 이용가능 무료정비서비스는 S정비업체 사고처리는 S화재 4년마다 원하는 신모텔 차량을 순환으로 탈 수 있다. 4년 뒤 보증금 100% 환불

이전 자동차는 소유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국내, 수입차 편리하고 경제적인 사용의 개념으로 보셔야 할때

네가 원하는 국내, 수입차 전차종 가능...

- 세금 부담
- 정비 부담
- 보험 부담
- 주행거리 제한
- S보험사
- 장비 보험
- S정비업체
- 자금보증

CTS매니저 박종욱 010-9104-4742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야크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6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축)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756-2833